

도, 민간주도 초격차 기술창업 조성 탄력

기후테크 등 4개 유망 기술창업투자사 유치 도내 중소벤처기업부 TIPS선정 지원 계획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민간주도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며 탄력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4개의 유망 기술창업투자사(TIPS운영사)를 선정·유치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민간주도 초격차 기술창업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TIP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투자사(TIPS운영사)가 글로벌 진출 기술역량을 갖춘 창업기업을 발굴해 1억 이상 선투자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당 7억에서 최대 15억원의 지원금을 매칭하는 사업이다.

TIPS는 창업기업의 데스벨리 극복과 후속투자 유치 등 정책적 효과가 입증됐지만, 지역 내 TIPS 운영사가 적어 도내 창업기업이 TIPS기업으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이후 전북지역의 기술창업 생태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2년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1조원 펀드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TIPS운영사를 지역에 유치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지역에 TIPS운영사 유치를 확대하며(22년 0사, 23년 2사, 24년 5사) 기술창업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 도내 TIPS선정 기업은 2022년 2개사에서 2023년 8개사로 증가했다.

이들 투자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내 기술창업기업의 투자유치 및 중소벤처기업부 TIPS선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2023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크립톤(대표 양경준)은 미디어테크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작년 전북자치도, 전

주시와 K콘텐츠 산업 육성 협약을 맺었으며,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진행했다.

올해 새롭게 3개의 투자사가 지역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소풍벤처스(대표 한상엽)는 기후테크 분야에 전문화된 투자사로, 지난해 전북강원 지역혁신펀드 운영사로 선정됐으며, 새만금 일대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및 폐배터리 리사이클 생태계를 중심으로 기후분야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다.

스케일업파트너스(대표 이태규)는 레드바이오 분야 투자사로, 20년 이상 업계 베테랑으로 구성된 벤처캐피탈이다. 익산, 정읍 등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업하며 바이오헬스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로우파트너스(대표 황태형)는 국내 유일의 방산분야 TIPS운영사로,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에서 연구된 공공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등을 우선하고 도의 방위산업 기술 네트워크 확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전북자치도가 초기단계 창업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창업 이후 3

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지역이 투자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 부족보다 초기단계 경영 역량이라 진단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민간투자사와 협력하며 생태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중장기 산업전략 마련, 투자사 유치 및 성장단계 펀드를 조성하고, 시군은 기업지원 인프라 제공 및 창업기업의 보조금 지원한다. 그리고 민간 투자사는 엑셀러레이팅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창 기업유치지원 실장은 "우수한 기술창업기업들이 투자·육성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역 창업생태계를 성숙시키겠다"며, "우리 지역 창업자들의 국내 최고의 TIPS운영사를 만나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유치된 운영사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TIPS도 전 기업을 발굴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창업지원과(063-280-3272)에 문의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4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도내 관광지원 홍보에 나서고 있다.

도, 2024 내 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3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 '전북홍보관' 운영 미식, 웰니스·의료관광, 천리길 등 테마관광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전북특별자치도를 2024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체육·관광산업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28일부터 4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지원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주관하며, 지자체·여행업계·국내외 관광유관기관 등 2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여행박람회다.

도는 이번 박람회 주제인 '버킷리스트'에 초점을 맞춰,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전북 관광지·축제·행사를 중심으로 홍보관을 구성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벤트, 비투비(B2B)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식관광, 워케이션, 웰니스·의료관광, 전북천리길 등 전북의 맛과 멋,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테마관광을 홍보해 전북의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남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홍보관 운영을 통해 전북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며, "전북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확충과 관광업계 성장 지원, 체류형 관광 확산으로 관광산업에 활력이 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범죄 취약지 꼼짝마" 자율방범대 순찰 강화

전북자경위, 자율방범대 순찰지원 앱 소통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체 개발한 '자율방범대 순찰지원 앱'을 통해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지 개선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28일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개 시·군 경찰서 치안업무 담당자 및 자율방범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최초로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과 통(通)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APP)'을 개발해 상반기부터 4개 시·군(전주, 김제, 임실, 부안)에 시범운영 됨에 따라 시·군 경찰서 자율방범대 업무담당자 및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범대 순찰지원 앱(APP)은 경찰청 범죄예방 예측 데이터, 주민들이 요청하는 단력순찰 데이터 등을 결합해 자율방범대에게 효율적인 순찰경로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스마트폰에서 '자율방범순찰'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안심지도, 순찰경로, 안전교육 등 메뉴를 통해 자율방범대원이 순찰활동을 지원하며 직무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경위는 해당 사업을 올해 시범운

영하고 내년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형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경위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실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방범대 순찰 실비 지원 사업인 '자율방범대 협력치안 강화사업'을 실시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제3기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출범

제3기 총괄건축가로 전주대 건축학과 김준영 교수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기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위촉해 내실 있는 건축 제도를 운영한다.

전북자치도는 28일 도청에서 지난 2월 위촉된 제3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3기 민간전문가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간 공공건

축관련 정책 발굴 및 자문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건축·도시 디자인 강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총괄건축가로는 전주대 건축학과 김준영 교수가 위촉됐고, 공공건축가로는 역량 있는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총 30명이 위촉됐다.

특히,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김준영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건축사를 취득해 미국에서 설계 경

험이 있어, 도의 공간 정책 및 전략 수립에 큰 조력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의 미관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양한 기술사 등을 새롭게 공공건축가로 위촉해 품격 있고 멋스러운 공공건축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2024년도 현안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행동윤리강령 준수를 서

약해 의무와 책임을 다짐했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도시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와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품격 있고 멋스러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한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모든 연안여객선 와이파이 무료 서비스 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연안여객선(군산, 부안) 6척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4월 1일부터는 여객선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섬 주민은 물론, 도내 서해안 지역의 섬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도 여객선 내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와이파이는 시내버스나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다중 밀집장소에서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연간 23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여객선만은 예외여서 섬 주민과 여행객들의 불

편이 있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해당 시군과 함께 공공와이파이 설치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부터 처음 시행해 연안여객선의 이용 서비스를 개선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섬 주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이 개선되고 통신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도내 서해안의 도서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도 관광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